

#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8, 사도행전 3-5장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의 8회기입니다.

서문에서는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모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대부분에서 나는 여러분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대 배경을 제공하는 데 특별히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그것이 당신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영상을 시청할 만큼 헌신했다면 이미 사도행전을 스스로 읽을 만큼 헌신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디오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은과 금이 자원을 포기한 243장, 44장, 46장, 47장에 나오는 내용의 예를 제공합니다. , 243번, 46번, 47번의 기도와 같이 표적과 기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기적은 종종 표적을 통해 전파할 기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성전 문에 있거나 성전 문 중 하나인 아름다운 문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이 이스라엘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성의 법정보다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관리인들이 그런 일에 얼마나 엄격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해사본을 쓴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곳은 문 옆으로 사람들이 늘 다니기 때문에 구걸하기에는 좋은 곳이었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경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유대교는 매우 높은 노동 윤리와 높은 자선 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이상 구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자비로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는 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그에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줍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각각의 장점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제안은 아마도 예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첫 번째 책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셈족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다른 곳에서 사용한 내용과 사도행전 1장 1절의 위치를 고려할 때, 제1권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2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나중에 나온 제목인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예수의 행전이 일부 추종자들을 통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누군가의 치유를 원할 때 예수님은 행동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데 대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영예를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왜 우리를 우리 자신의 능력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보느냐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그분께 영예를 돌리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메시지에 대한 몇 가지 메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나라. 집단적 죄에 대해 말하자면, 그의 청중 대부분은 실제로 거기에 없었지만,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외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3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종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은 그리스어 번역판의 이사야 52장 13절을 반영합니다. 거기서 종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와 관련하여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승영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말합니다. 글썄, 그가 이사야 52장 13절의 문맥을 생각한다면, 이사야 53장 11절은 의로운 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에 대해 두 배의 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3장과 15절에서

베드로는 아르케고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는 영웅, 개척자, 도시 창립자를 지칭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이 운동의 창시자이시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시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신 분, 죽음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그것들의 일종의 조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다양한 번역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70인역에서 씨족의 지도자들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리더이고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5:31 에서도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2장 2절에도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3:14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살인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를 받아들인 다음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창시자, 개척자를 죽였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그리고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그는 죽은 채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무지가 고대 법과 사상의 과실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베드로는 약속된 메시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글썄, 3장 18절에서 사용된 언어는 나중에 유대인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가 이 주제 또는 저 주제를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내내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는 메시아 시대나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회복시대에 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의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셨지만, 이에 앞서 회개가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보다 앞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피터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복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14 :1-7, 요엘 2:18-3:1, 그것은 영어 번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명기 4장 30-31절에도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회복에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함으로써 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나중에 랍비들은 온 이스라엘이 하루에 모두 함께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할 것인지, 온 이스라엘이 저것을 할 것인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다른 랍비들은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이는 회복과 회개의 시기와 연결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기를 미리 정하셨으나, 이스라엘의 회개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원될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만물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일부 이방인들은 순환의 세계, 특히 스토아학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주기적으로 불에 의해 파괴되어 새로운 우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불 속에 녹아서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베드로가 유대인 청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유대인의 기대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하는 이 땅의 창조, 평화, 번영의 회복(이사야 11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17. 또한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라 이사야 65장 18절과 19절, 66장 8절부터 11절까지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서의 주된 사상은 아마도 회복이라는 용어나 회복에 관련된 용어가 이미 사용된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과 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려던 때가 이 때니이까?” 글썬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 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하며 그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글썬요, 그분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상쾌한 때가 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유대 민족 중 누구도 돌아서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많은 유대 민족이 돌아섰지만 유대 민족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약속된 회복의 시기를 가져올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사야가 이방인들을 데려오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그의 사역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와,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심지어 이방인들도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을 시기하게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줄을 알고자 하여 시간이 충분히 허락된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믿게 하려 함을 믿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유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언어는 사실 헤브론 10장 1절의 미슈나에서 나오는 언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랍비들은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예외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 유대 민족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상상한 대로, 적어도 그리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 맥락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그들이 전에 너희를 향하여 스스로 자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사실 역사의 많은 부분을 통해 이방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곳은 바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0명으로 추정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여전히 세계에서 유대 민족의 아주 작은 비율입니다. 아마도 1세기, 2세기, 3세기 이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1세기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렘넌트를 생각할 때 렘넌트의 문제는 그 수가 너무 작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의 문제는 그것이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바울이 상상했던 일들과 베드로가 여기서 바랐던 일 중 일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었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산이 버려졌다거나 메시지를 처음 전해 준 유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잊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축하했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모세와 같을, 그가 나타나기 전에 숨겨질 숨겨진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마리아인들도 축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사해 두루마리(Dead Sea Scrolls)에서도 기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시대에 매우 강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나 여호수아의 기적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로운 모세와 광야에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선지자이셨습니다.

제가 궁극적인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였나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선지자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모세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24-26에서 베드로는 24절에서 사무엘 이후의 예언에 대해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글쎄, 그게 무슨 뜻이야? 글쎄, 그는 방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세는 거절당한 구원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에 대해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승영되기 전에 보통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가장 의로운 사람이 탁월한 의로운 고난을 당할 의로운 고난에 관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사야 53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 마찬가지로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메시아 시대를 예언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다윗의 아들이 다스리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말할 때 Peter가 여기서 말하는 것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하는 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본문을 구체적이고 독점적으로 찾고 있다면. 다윗의 통치하는 아들에 관한 성구들 중에서 그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구들.

그가 신성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람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의 또 다른 내용은 아마도 적어도 이사야서의 이전 예언과 관련하여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새 모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높아지실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약속, 회복의 약속, 메시아가 와서 행할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먼저 오신 백성에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녀이거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화 상대 중 일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하면 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7절에 보면, 여러분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스테반은 베드로가 무지하게 행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의 죄책감이며 그는 그들에게 돌아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영웅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십시오. 글썄, 그가 그들에게 오는 것에 대해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 축복, 창세기 12장 3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또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열방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3:13에서 이미 언급한 그 종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물론, 먼저 누가는 그 이후에 있을 이방인 선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은 성전 당국으로부터 심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성전 당국에 의해 심문을 받는 걸까요? 왜냐하면 4장 2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에 관해 격렬하게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괴롭혔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위협이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론적 희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미래가 이미 역사 속에 침입했다는 경험적 증거였다.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권력의 위치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될 사도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계층과 대부분의 상주 사제직을 통제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왔다고 합니다. 성전 경비대는 로마인들이 허가한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지방 경찰대였습니다. 글썄, 그들은 오후 3시쯤에 기도 시간을 위해 올라왔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몰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아야 하고 밤새 억류해야 합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긴급 모임에서 했던 것처럼 밤 모임을 소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안나스는 요셉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대 뒤에서 많은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사위뿐만 아니라 다섯 명의 아들이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18세부터 36세까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권력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때로는 곤봉으로 사람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들 대제사장 중 일부가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했는지에 대해 온갖 나쁜 일들을 보고합니다. 누가가 대제사장에 복수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의 대제사장인 로쉬 하코헨과 달리 이 시대의 귀족 제사장, 즉 대제사장 가문을 모두 이 시대의 관용어로 대제사장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가문 전체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음, 우리는 또한 여기서 계층 구조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봅니다. 그들은 여기서 계층 구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 사람을 처형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 이 사람이 반역죄로 처형되었다면, 그를 옹호하고 그를 심판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선한 일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리스-로마 사회의 전형적인 죄로 간주되었던 배은망덕의 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신은 감사와 명예로 은혜를 갚아야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만약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 여기로 부름을 받았다면, 은혜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주요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기부자들이 건물을 세우거나 때로는 시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징집되는 곳 등 곳곳에 이를 기념하는 비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은인이라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방인 중에 가장 큰 자가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고난과 섬기러 오셨으나 또한 예수께서 오셔서 전도자 곧 은인으로 역사하셨느니라 누가복음에는 나사렛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행 10:38) 은사를 베풀셨느니라.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예수의 이름을 통해 이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구원을 뜻하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 성전 뜰에서 연설하고 이 균중을

끌어모으고 우리의 권위에 도전할 권리를 주었나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약 정말로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람이 만든 이 전체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은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실, 구약의 좋은 관용구인 천하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류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엘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21절에 따라 육체적인 치유에서 구원으로, 즉 이스라엘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개인에게 약속된 구원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자주 언급하는 요점을 드러냅니다.

확실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진리나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여기서만 언급된 요점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바울의 서신과 신약성서 전체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위로부터 나고,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바울과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속박에서 악의 세력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이 구원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한 주로서 다른 주로 이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말은, 당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면, 점차적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일찍부터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고 나중에 개종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매우 극적이고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사건이 발생한 대략적인 오후 시간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요점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듯이 그 문화에서도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이미 공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배타적인 존재로 여겨졌고 유일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매우 멸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신을 숭배합니다. 당신이 신을 갖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 신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래? 당신은 매우 무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 때문에 유대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높은 신을 숭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배타적이었습니까? 이를 위해 사도교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처럼 되고 싶다면 오늘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음, 당신의 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문화에서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외부인, 소외된 사람들,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아는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월한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라고 제안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깨어진 자들, 하나님께 환영받은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당국은... 성전 당국은 권력의 위치에서 진실을 억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닥치라고 하면 줄을 서서 닥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길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그들이 많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받았을 그런 수준의 엘리트 수사학 훈련, 그리스 교육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대답합니다. 거기에 있는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parousia)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담대함과 솔직함을 나타내는 파루시아(parousia)로 말하는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자극하며 돌아다니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관리들 등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메시아 예수에게 속한 정당한 권위를 찬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간주되는 위협과 함께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제자들, 곧 다른 믿는 자들에게로 가는데, 그들 중 지금은 꽤 많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부터 개종한 사람들이 모두 아직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축제를 위해 방문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증거를 통해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룹 전체라면 공개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돌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동시에 정확히 같은 기도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전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 중 일부를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것은 그 행사를 위한 자발적인 기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사용된 이 말씀은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서 기도하기 위해 신자들을 모으고 이 기도를 인도할 때, 그들은 열방이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함께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시편 2편. 그것은 다윗 계보를 다루고 궁극적으로 다윗 계보의 전형, 곧 회복이 이루어질 분, 현재 약속된 메시아로 이해되는 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Mashiach)는 단순히 기름부음받은 자를 의미한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기름부음받은 자를 말할 때 특히 기름부음받은 왕을 떠올렸습니다.

사해사본에는 기름부음받은 왕과 기름부음받은 제사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름부음받은 왕은 다른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인 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라도와 이들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과 같은 담대함, 파루시아, 담대함을 계속 주시고, 계속 손을 뻗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그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방금 언급한 종 예수는 사도행전 3장에서 고통받는 종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길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연설의 요약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 방금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산헤드린 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걷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개 전파할 기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예 응답하시고 431년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영감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스가랴의 경우, 어머니의 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의 경우 등에서 이미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특히 예언이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은 다른 종류의 예언적 행위와도 관련이 있고 때로는 다른  
 일과도 관련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우는 언어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누가복음 4장에서 군중이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장소가 흔들린다.

이것은 매우 흥미 롭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역사상 일부 부흥회에서는 가끔 보고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 중  
 일부를 다시 행하십니다.

20세기 부흥이 있었는데, 20세기 중반에 헤브리디스 지방에 부흥이 있었는데,  
 주로 장로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부어지자 32절부터 37절까지에 묘사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들이 소유를 공유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필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급진적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사물을 얻기 위해 주시는 능력의 관점에서 성령에 대해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과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모두가 보살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장과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의 수가 오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종 남자의 수만 세었기 때문에 전체 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루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장소에 따라 그들은 인간의 법정에서 설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 이스라엘 법정을 넘어서 설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곳은 반드시 바깥뜰이 아니라 여자의 뜰이며 이스라엘의 뜰로 가기 전이고 그 너머에는 제사장의 성소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여성들도 신자가 되었고, 어린이들도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5,000명이라고 합시다.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신자가 있는 사람은 모두 10,000명과 같습니다.

이제 역사상 대부분의 상황에서 실제로 교회 내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1세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 이후에 유대교로 개종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포경수술은 남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여자들은 포경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자의 수가 남자보다 많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남자들이 개종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것이지만,

여성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약 10,000명의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 기간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25,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에 기초한 새로운 추정에 따르면 인구는 아마도 약 85,000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10,000은 매우 큰 숫자이지만 인구의 절반을 넘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비교해 보면 아마도 바리새인의 대다수가 예루살렘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숫자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모두 합쳐 약 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약 4,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는 사두개인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추측으로는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수적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세네파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의 수가 아마도 사두개인들의 전체 수보다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이러한 수치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유대 땅에 신자가 수만 명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이 있는 유대 지방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신자 수만 명, 즉 최소 20,000명,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산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까지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꾸준하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역사상 다양한 부흥 운동을 살펴보면, 종종 초기 부흥에서 엄청난 확산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곳에서 제2차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미국 감리교회는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 운동 동안, 프란시스 애스버리(Francis

Asbury)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몇몇 감리교인들이 있었지만, 그가 영국에서 이곳에 도착하여 설교를 시작한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감리교회는 약 1,0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대략 같은 기간에 수백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어난 부흥, 인도네시아의 니아스 부흥, 그 기간 동안 교회의 엄청난 성장을 살펴보세요. 나는 그것이 100배 이상이었다고 믿는다.

1906년부터 시작된 20세기 초반의 오순절 부흥을 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오순절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운동, 성결 운동 등에서 이 운동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실제로 시작된 1906년부터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6년까지 추산이 있습니다. 음, 이러한 추산에는 단지 교단적인 오순절 교회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데, 음, 사람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세기 안에 5억 명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고전적인 오순절교파라면 적어도 2억 명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놀라운 성장입니다.

부흥 운동은 종종 폭발적인 성장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학적 유사점을 비교할 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수치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4장과 6절에서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있었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성직자가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다른 소식통에서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소조(sodzo)와 동족인 명사인 소테리아(soteria)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께서 누가복음 20장과 17절에서 인용하신 것을 여기 4장과 11절,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진짜 모퉁잇돌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흥미롭게도 그분이 배척당하신 장소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장소는 채석장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문자 그대로 거부된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계질서보다는 신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철학자들은 도전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때 사람보다 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장에서 피터가 그런 말을 다시 할 때 사용된 언어 중 일부는 소크라테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알았어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그리스 교육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았던 환상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종류의 담대함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단,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또는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는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그들은 왕들과 맞섰습니다.

그들은 당국과 맞섰습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예레미야 26장).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1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거짓 선지자라 일컬어 너희를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에게 하였음이니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과 25절에서 매를 맞을 때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다른 죄수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데 여기 4장에서는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리고 있다.

16장 26절에서도 그 자리가 흔들립니다.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결속이 풀렸습니다. 4:24에서 그들은 시편 146편 6절을 반향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언급한 대로 25절과 26절은 기름부음받은 자가 메시아에 적용되는 시편 2편 1절과 2절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정하셨나이다.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악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관원들은 그것을 악으로 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뜻하여 요셉의 말을 사용하셨다. 또는 이사야 10장에서 앗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는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여 그들을 사용하기를 마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악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너무나 주권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자유 선택권을 허용하여 사람들이 그 영역 내에서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순간 저는 이 주제에 관해 메모하면서 성경 전체를 훑어보았고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직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생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각자를 위해 승리할 것입니다.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때 복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4장, 시 137편, 예레미야 15장. 그러나 여기서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 것과 같이 담대함과 표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글쎄요, 여기서 그들은 묻습니다. 여기 온다.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능력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고려하면 기호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대조되는 예가 있습니다.

밭을 판 요셉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샌들이나 망토 같은 것들을 반드시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들이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충분히 잘 할 수 없고 위임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 6장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요셉이 좋은 예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별명은 흔했습니다. 요셉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요셉인지 지정하려면 그에 어울리는 다른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은 아마도 요셉 바르사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의 아들 바르사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셉 바나바(Joseph Barnabas)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 키프로스에는 중요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20절에서 우리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바나바는 이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의 주요 소식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요셉 바나바가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사촌이거나 친족이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과 13절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관해 읽을 때 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상위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녀는 꽤 부유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원래는 디아스포라 출신이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예와 대조됩니다. 4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 긍정적인 예는 요셉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정적인 예가 있다.

그리고 그 예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삽비라가 아름답다는 뜻을 지닌 이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 엘리트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의 측면에서 그들 위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랬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꽤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이 완전히 헌신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이 부흥의 일부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표면적일 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흥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당신은 그것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의 일부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수용소에서 죄를 다루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어로 된 언어 중 일부는 예리고의 전리품 중 일부를 자신을 위해 보관했던 유다 지파의 아간에 관한 여호수아 7장의 그리스어 번역을 반영합니다.

그것들은 자신만을 위해 보관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헤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에 헌신했습니니다.

그들은 예리고의 죄로 너무 오염되었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스스로 간직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심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늘날 죄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쯤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많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 사이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병들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가운데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구약의 구절들은 그것을 뿌리 뽑는 것, 죄를 뿌리 뽑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죄인을 처형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악을 근절하기 위해 신명기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공개적이고 알려진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에 대해 처형합니다. 이번 부흥의 와중에도 사적인 죄까지 지었습니다.

뭐, 공개됐지만 죄로 알려지지는 않았죠. 그 행동은 공개되었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항상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까지, 사해사본에서는 회원들에게 시험 기간을 거친 후 소유물을 반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종파인 피타고라스학파도 회원들이 정말로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 소유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냐? 당신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돈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은 그들이 제공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헌신하는 척하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위선자들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선자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복음 전파에 해를 끼칩니다. 글쎄, 사해 두루마리는 그러한 범죄자를 1년 동안 공동 식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로 적발되면 커뮤니티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아론의 두 아들이 거룩한 불을 가지고 놀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쳐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대할 때 심판을 내리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흥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부흥의 시대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적이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가볍게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신자가 되어 교회에 속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고 합니다. 구약성서에서 누군가가 처형되었을 때와 같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심판 행위를 넘어서 기적이 증가합니다. 기적의 대부분은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병자들을 거리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가 사람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당신의 그림자가 시체에 닿거나 당신의 그림자가 무덤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이를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그의 뼈 위에 시체를 던지자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에게서 옷을 빼앗겼고, 그 옷으로 사람들이 기적으로 낫고,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종종 그들은 바울처럼 누군가가 병 고침을 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등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너무 극적으로 부어져 우리가 이 정도의 강도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온 문제는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훌륭해요.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사람들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그들이 사두개인들과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의 8회기입니다.